

앤드로지너스 이미지를 응용한 남성 셔츠 디자인

강 나 나* · 이 연 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Men's Shirts Design Applying the Androgynous Image

Nana Kang* and Younhee Lee†

Graduate School of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2009. 8. 3. 접수일 : 2009. 11. 9. 수정완료일 : 2009. 12. 10. 게재확정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ress the androgynous image via shirts as a fashion item. Shirts are widely worn as a fashion item regardless of sex and age, with growing importance as a casual outer, with the increase in leisure activities driven by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the 5-Day Work Week system in Korea. As for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study was reviewed previous studies of books, thesis, a series of publication, and the Internet sites on this topic. Through a careful analysis of these previous studies, it designed and made shirts that inspired by androgynous imag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found that meanings of symbolism in clothing continue to change, not fixed at all, depending on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s, and so does symbolism for femininity and masculinity of clothing. Second, shirts are widely worn as a fashion item regardless of sex and age, with growing importance as a casual outer, with the increase in leisure activities driven by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the 5-Day Work Week system in Korea. Third, two patters were used for the work in this study in order to emphasize its form, along with mono color white and stripe patterns. For materials, cotton and blend as a most basic material for a shirt were used with unique variations in the form. Fourth, decorative details or trimming such as ribbon tying methods, shirring, attaching in layers, and irregular pleading widely used for women's wear were applied, and silhouettes with strong drape feelings were used to add feminine feature to men' shirts, in an effort to propose a fashion design of the androgynous look. Fifth, cloth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different from feminine clothing item blouse, because they are androgynous shirts mixing masculinity and femininity. Stiff pads were used in collars and cuffs characteristics of men's traditional shirts to maintain masculinity of a shirt, and design was developed by adding feminine decorative elements, which is different from women's blouse.

Key words: androgynous image(앤드로지너스 이미지), men's shirts(남성 셔츠), casual outer(캐주얼 외의).

I. 서 론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인간형이 아닌 양성의 특징을 모두 소유한 이성적(理性的)인 인간에 대한 욕구가 생

† 교신저자 E-mail : yiyhee@hanyang.ac.kr

겨났으며,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남성복에도 영향을 끼쳤다. 남성들은 더 이상 강한 남성이 되기를 거부했고 새로운 성 정체성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남자와 여자가 아닌 개개인의 개성과 감성을 중요시하는 앤드로지너스 룩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으며, 정신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결합이라는 앤드로지너스의 관념이 복식이라는 도구를 통해 표현된 것이다. 즉, 성의 경계선과 한계가 없어짐으로써 의복이 순수한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표현의 한계 또한 없으므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양성적 성의 이미지인 앤드로지너스 룩의 등장은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¹⁾.

본 연구는 앤드로지너스 이미지를 셔츠라는 복식 아이템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셔츠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널리 애용되고 있는 아이템의 하나로 최근에는 주 5일제 근무로 인하여 레저 생활이 확대되면서 캐주얼한 겉옷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앤드로지너스 이미지를 응용하여 현대 남성 셔츠의 새로운 조형성을 제시하고 현대 트렌드에 적용시켜 다양하게 전개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그 조사를 토대로 한 작품 제작으로 구성된다. 단행본, 학위 논문, 연속 간행물, 인터넷 등을 통한 문헌 연구와 사진 자료, 패션 잡지를 통한 실증적 자료를 수집한다. 1999~2009년 사이의 'VOGUE'와 같은 패션 잡지들, 'Fem collections', '동아TV collection', 'fashion insight collection' 등 패션쇼 관련 간행물들을 비롯한 정기 간행물들, 국내의 서적들과 인터넷 패션 정보 사이트 등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위하여 문헌 자료를 통해 앤드로지너스의 개념과 출현 배경, 앤드로지너스 룩의 특성을 알아보고 사진 자료를 통해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룩의 사례들을 컬렉션 사진을 중심으로 분류, 정리한다. 또한 본 연구의 복식 아이템인 셔츠의 기본 개념 및 역사와 셔츠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사진

자료를 통해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셔츠 디자인을 수집, 분류한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앤드로지너스를 응용한 셔츠를 제작한다. 셔츠의 기본이 되는 화이트 셔츠와 스트라이프 셔츠를 기본으로 셔츠 칼라와 커프스, 절개선이 없는 박스 형식의 기본 셔츠를 기본으로 남성적 디자인 요소를 유지한 채 여성적 디자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컷팅, 주름, 셔링, 리본 등의 기법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남성적인 이미지의 포멀셔츠도 아니며 완전히 여성적인 이미지의 블라우스도 아닌 하나의 의복 속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유된 앤드로지너스 이미지의 셔츠를 제작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앤드로지너스 이미지에 관한 고찰

1) 앤드로지너스의 개념

앤드로지너스(androgyne)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남자를 칭하는 '앤드로스(andro)'와 여자를 나타내는 '지나케아(gynacea)'의 합성어이며, 남자와 여자 양쪽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양성 공유', '자웅동체'를 의미한다²⁾.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에 덧붙여 Alexandra G. Kaplan과 Joan P. Bean은 그들의 저서에서 앤드로지니(Androgyny)는 단 하나의 유기체 안에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특성이 존재하는 즉 양성체(hermaphrodite)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³⁾. 심리학자 산드라 뱀(Sandra Bem)도 양성성의 개념을 주장하였 지, 남성성이나 여성성의 양분화 된 범주로 인간을 국한시키는 것은 위험하며, 남성이나 여성은 모두 남성적 특질과 동시에 여성적 특질을 함께 지닐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질이 높은 사람을 양성적(androgyne)이라 하였다⁴⁾.

남자는 남성성을 가지고, 여자는 여성성을 가진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비현실적인 고정관념의 한 형태에 불과하며 실제로 인간은 양성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양성체의 존재를 추구해왔다. 앤드로지너스란 용

1) 이정호, "현대 남성 셔츠에 나타난 성 개념과 미적 가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 4.

2)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1973).

3) Alexandra G. Kaplan, *Psychology and Sex Rol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9), pp. 76-79.

4) 김민자, "2차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11권 2호 (1987), p. 74.

어는 이성, 공격성, 용기, 힘 등으로 대표되는 남성적인 특성과 유연성, 인내, 순종, 직관 등으로 대표되는 여성적인 특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인간 상태를 의미한다⁵⁾.

이처럼 양성성 즉, 앤드로지너스란 고대의 완벽성, 전체성을 지닌 신성한 의미로부터, 현대에 이르러 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탈피, 자유주의의 추구, 성별의 한계를 극복한 완전한 성의 표현 등 다양한 의미와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위대한 정신에는 앤드로지너스가 존재한다”는 Sumuel Coleridge의 말처럼 하나의 커다란 완성을 위해 필요한 정신적 개념으로 그 수용의 폭을 넓혀왔다⁶⁾.

2) 앤드로지너스 룩의 출현 배경 및 특성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남자와 여자라는 생리학적 성(sex)을 갖게 되고, 점차적으로 사회적인 성(gender)을 획득해 나가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남자는 남성성을, 여자는 여성성을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절대적 의미로 당연시되어 왔다⁷⁾.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수세기 동안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이며 이분법적 성별 체계에 의해 남성에게 종속 불가피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며, 남자는 남성적인 것이, 여자는 여성적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왔다⁸⁾.

그러나 21세기는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핵가족 구조로의 변화, 성의 해방, 전통적 결혼제도의 불안정성 등으로 성별에 대한 차별 현상이 점차 와해되어감에 따라 현대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진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급진적인 역할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그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로써 양성성(Androgyny)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⁹⁾. 즉, 양성성(Androgyny)은 “사회의 성 역할이 고정관

념을 이루는 내용 중에서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공존하는 것”을 말하며, 이처럼 의도적으로 제시된 모형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성적 특성이 정신적으로 강하다고 여겨졌다¹⁰⁾.

이렇듯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연구들은 복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패션에서의 양성성의 개념은 남성이 복식에 있어 여성적 디자인 요소를 채택하거나 여성이 복식에 있어 남성적 디자인 요소를 채택하여 성을 초월한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고정 관념적인 성 역할에서의 남녀의 차이가 사라짐과 동시에 양성간의 의복의 차이가 사라진 것이다. 의복에서 양성성의 표출이란 자신의 성을 부정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남성적 또는 여성적인 것으로 분류되어 관념화 되었던 서로 대립적인 두 개의 이미지가 한 의복 속에 동시에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1960년대 이후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도 앤드로지너스 룩의 등장에 영향을 끼쳤다. 해체, 탈 중심, 분산, 차이, 불연속성, 소멸, 분해 등으로 묘사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가 아닌 하나된 인간 공동체로서 성의 양성화를 추구하려는 앤드로지너스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1970년대 빅 룩과 레이어드 룩의 유행과 일본 디자이너들의 등장도 포스트모더니즘 현상과 함께 비구축적인 의복의 유행을 가져왔으며, 남녀 의복을 크로스 오버시킨 룩 스타들의 등장과 헤어 메이크업 등은 앤드로지너스를 부각시키고 대중화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서로 대비되는 특성의 혼재라는 80년대 패션의 특징과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에서의 양면 가치의 표출은 90년대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앤드로지너스 적 성향의 기반이 되었으며¹¹⁾, 내제된 성의 자유로운 표출과 자아를 중시하는 개성은 20세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여러 디

5) 류터마리 로즈, *여성해방과 성의 혁명*, 최공복 역, (서울: 일월서각, 1983), p. 162.

6) 박수진, “앤드로지너스 룩의 색채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패션산업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p. 7.

7) 이현지, “국내 남성패션의 여성화 경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 5.

8) 김영인, 이연희, “현대 패션 룩(look)에 표현된 성(性) 정체성,” *복식문화연구* 13권 5호 (2005), p. 5.

9) 윤은아, 이선재, “성 역할 정체감이 겉옷, 속옷에 대한 의복행동 및 의복 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4권 2호 (2000), p. 154.

10) Alexandra G. Kaplan, and Joan P. Bean, *Beyond Sex-Role Stereotypes: Readings toward a Psychology of Androgyny*. (Boston Toronto: Little, Botton and Company, 1976). p. 21.

11) 박수진, op. cit., p. 17.

자이너들에 의해 끊임없이 리바이벌 되고 있다.

3)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룩

패션에 나타난 최초의 앤드로지너스는 사머니즘 문화에서 제사나 주술 행사를 주관했던 사제의 복장이다. 그들은 신의 신성함과 힘을 얻기 위해 이성의 복식을 착용했다. 그 후 앤드로지너스는 1970년대에 록(Rock) 스타들의 패션에 나타나면서 1980년대 중반에 가장 두드러져 앤드로지너스 룩(Look)으로 정착되었다. 70년대 록 스타들은 의상에 번쩍이는 것을 부착해 조명에 따른 반사 현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였으며, 파격적인 무대를 연출하기 위해 남성 연주자들은 메이크업을 하거나 여성들의 장신구나 스커트를 착용하였다. 대표적인 록 가수로는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 지미 헨드릭스(Jimmy Hendrix), 보이 조지(Boy George)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강력한 핑크 패션으로 혼돈적인 양상을 보이던 앤드로지너스 패션은 1980년대 중반에 가장 두드러지게 된다¹²⁾. 1980년대 앤드로지너스 룩의 아이콘이었던 애니 레녹스(Annie Lennox)가 오늘의 룩을 있게 한 주인공이었으며, 이후 케이트 모스가 켈빈클라인의 캠페인을 했던 1990년대에는 질 샌더와 헬무트 랭 같은 미니멀리스트 디자이너들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다¹³⁾. 그러나 최근의 패션에 있어 앤드로지너스 룩은 이러한 관념의 표현이기보다는 자유로운 감성의 표현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는 위엄이나 상징성보다는 세련됨과 개인적 쾌락, 장식성이 더 중요시 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룩의 양성적 이미지의 표현 방식을 보면 반대 성 이미지의 요소를 일부 도입한 경우로 복식 자체에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를 공유해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경우와, 이성의 복식 요소를 전체에 도입한 경우에도 착용자의 성을 완벽하게 위장하지 못하고 착용자의 성이 남게 되어 자신의 신체 적성과 복식을 통해 이성의 성을 공유함으로써 양성적 이미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둘 다를 포함한다. 복식에 있어 양성성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성의 디

자인 요소를 이용하거나 직접적인 이성의 단품을 이용하는 경우,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모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복에 표현된 양성성의 디자인 요소를 형태, 질감, 소재, 무늬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성의 소품,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등의 요소를 살펴보았다.

형태는 조형예술의 순수 시각적 요소 중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윤곽’, ‘구조’, ‘내부’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의복에서 윤곽이라 함은 실루엣을 의미하고 구조란 솔기, 다트, 개더 등과 같은 구성선을 의미하며 내부란 네크라인, 칼라, 소매, 기타 장식 등의 디테일이나 트리밍을 의미한다¹⁴⁾. 실루엣에 있어서 위가 넓고 밑이 좁아 넓은 어깨와 가슴을 강조하는 Y형 실루엣이나 직선적이며 몸에 피트되지 않는 H형 실루엣은 남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며,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강조하는 X형 실루엣이나 곡선이 사용된 몸에 맞는 실루엣은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직선적이며 수직적인 구성선이나 단순한 장식 등의 형태는 남성적 디자인 요소이고, 곡선이며 가는 구성선이나 장식이 많은 형태는 여성적 디자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여성복은 표현성을 바탕으로 장식성을 추구하여 구조적인 선이 강화되었고 전통적인 남성복은 합리성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단순성을 추구하여 지나친 장식을 제거하여 구조적인 선이 약화되어 직선적인 라인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디테일의 수가 적고 큰 디테일은 남성적인 이미지로, 직선적으로 표현되었고 여성적인 이미지는 디테일 수가 많고 작은 디테일에 곡선으로 표현되었다.

양성적 성격이 반영된 남성복에 있어서는 여성적 이미지로 상징되는 인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또는 남성적 이미지로 상징되는 인체 부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양성성을 나타낸다. 허리를 강조하는 X형 실루엣이나 남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강조된 실루엣, 길고 가는다란 실루엣, 남성적 이미지로 상징되는 인체 부위인 어깨가 강조되지 않고 처진 실루엣 등이 이러한 의도를 반영한 윤곽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복에 있어 허리의 강조는 여성이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던 코르셋을 변형하여 남성 셔츠 위에 착용하는 방

12) 서은희, “남성 패션에 나타난 성 정체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50.

13) <http://www.ellegirl.co.kr/>[자료검색일: 2008년 10월]

14) 김세영, “현대 남성복의 조형적 특성에 나타난 양성화 경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9.

식(그림 1)이나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몸에 밀착됨으로써 허리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자연스럽게 허리가 강조되는 방식, 재킷 위에 벨트를 착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양성성이 표현된 남성복에 있어 가슴의 강조는 가슴을 노출시키거나 돌출시키는 방식 등으로 나타난다(그림 2). 허리를 강조하는 실루엣이나 가슴을 노출하는 실루엣 외에도 <그림 3>처럼 길고 슬림한 실루엣들의 의상에서도 남성복 실루엣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또한 근대에 이르기 까지 치마는 여성의 의복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며, 남성에게 있어 스커트의 착용은 여전히 많은 금기 항목이

남아 있지만 점점 남성의 스커트 착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4).

소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옷감의 질감은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양성성이 표현된 남성복에서는 얇고, 부드럽고, 비쳐 보이는 가벼운 오간디, 실크, 레이스, 새틴, 쉬폰, 모피나 인조털 같은 직물들을 이용해 양성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그림 5, 6).

의복에서 장식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무늬이며 장식 활동으로서의 무늬는 가장 수수하게 의복의 성격을 반영한다¹⁵⁾. 꽃무늬와 같은 식물무늬나 작고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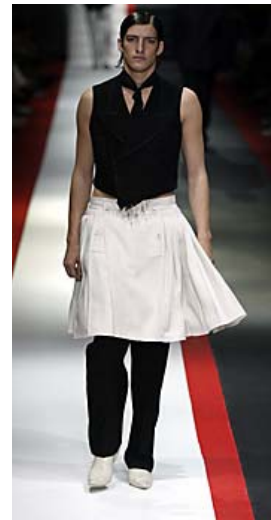
<그림 1> Alexander McQueen. 2009 S/S.



<그림 2> Helmut Lang. 2004 S/S.



<그림 3> Dior Homme. 2007 S/S.



<그림 4> Jean Paul Gaultier. 2003 S/S.



<그림 5> As Four. 2004 S/S.



<그림 6> Alexander McQueen. 2006 F/W.



<그림 7> Viktor & Rolf. 2008 F/W.



<그림 8> Roberto Carvalli. 2005 F/W.



〈그림 9〉 Comme des Garçons.
2005 S/S.



〈그림 10〉 Dior Homme.
2005 F/W.



〈그림 11〉 Givenchy couture.
2006 F/W.



〈그림 12〉 Gucci. 2008 S/S.

연한 무늬는 우연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어 여성성을 나타내기엔 적합하며 큰 무늬, 줄무늬, 체크무늬, 인공적, 기하학적 무늬들은 직선적, 인조적이어서 남성성을 나타내기엔 적합하다. 양성성이 표현된 남성복에서는 꽃무늬나 식물무늬가 집중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화려한 색상과 결합되어 나타난다(그림 7, 8). 앤드로지너스 룩의 양성적 이미지에 있어서 액세서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직접적인 이성(異性)의 단품이나 소품을 사용함으로써 양성성이 나타나는 것이다¹⁵⁾. 앤드로지너스 룩에 사용된 액세서리를 살펴보면 남성복에서는 여성스러운 목걸이(그림 9), 반지, 스카프(그림 10), 코사지 등이 많이 쓰이고 있다.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또한 양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은 의상과 더불어 개인과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강한 상징성을 가진다¹⁷⁾. 남성의 양성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헤어스타일은 단발머리나 긴 머리라고 할 수 있고, 〈그림

11, 12)와 같이 화장과 수염을 같이 표현한 이미지 사진으로 남성의 수염과 여성의 화장이 같이 표현되면서 양성성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2. 셔츠에 대한 고찰

1) 셔츠의 개념 및 역사

셔츠의 기원은 고대 오리엔트에서부터이고, 아시아 지방의 몸에 꼭 끼는 모직 셔츠가 그 전형이었다. 셔츠(Shirts)는 Shirt의 복수형으로 고대 영어로 스키프트(Scryte)라고 불렀는데, 그 어원은 스칸디나비아어인 스키프타(Skyrta)라고 전해진다. 스키프트(Scryte)는 셔츠라는 의미였으나, 더 오랜 옛날에는 ‘간단히 입는 것’을 내포한 의미로 상반신용이 셔츠(Shirt)이고 하반신용이 스커트(skirt)였다¹⁸⁾.

셔츠는 원래 상반신을 덮은 속옷이었다. 속옷이란 겉옷에 의해 완전히 혹은 거의 가려지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¹⁹⁾. 약 18세기까지 옷에 오물이나 땀이 묻는 것을 막기 위한 속옷으로 입어 왔으며, 특히 팬

15)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서울: 민음사, 1992), p. 31.

16) 채수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78.

17) 유흥식, “20세기 후반 여성복에 나타난 양성이미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p. 8-9.

18) 황삼숙, “남성복 Dress Shirts의 변천 과정과 유행 주기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3.

19) 이상례,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겉옷화 현상,” *복식 35권* (1997), p. 328.

티의 역할도 담당했기 때문에 뒷 판의 밑자락을 가량이 밑에서부터 앞으로 돌려 앞단추로 고정시켜 입었다²⁰⁾.

고대에는 속옷과 겉옷이 한 장으로 같은 성격을 가졌고, 중세에는 속옷이 죄의식과 연관되어 노출되지 않아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근세 초기의 르네상스 시대를 통하여 속옷이 노출되면서 바로크 시대는 남녀 속옷의 기능이 분리되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18세기에 속옷으로 한정되어 왔던 셔츠가 다양하게 디자인되기 시작했으며, 이것을 장식적으로 보이도록 상의의 버튼을 잠그지 않고 입는 것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 캐주얼 셔츠가 등장하면서 상의 안에 입었던 옷으로 한정되었던 속옷이던 셔츠가 점차 겉옷으로 표현되게 하였고, 20세기가 되면서 완전히 겉옷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셔츠는 현재까지도 속옷으로서의 셔츠와 겉옷으로서의 셔츠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셔츠는 원래 남성만을 위한 의복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한 19세기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입혀진 의복이었다. 20세기가 되면서부터 셔츠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입는 속옷이 아니라 남성이 입는 겉옷의 개념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의 셔츠는 코트 스타일 셔츠(coat style shirt)로 앞 목에서부터 앞 밑단까지 열려 있고 단추가 달려 있는 코트의 형태이며, 칼라와 커프스가 있고 밑단은 엉덩이에 이르는 것으로 정의된다²¹⁾.

2) 셔츠의 분류 및 구조

셔츠는 포멀 셔츠, 드레스 셔츠, 캐주얼 셔츠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포멀 셔츠는 예장용 셔츠, 즉 모닝코트나 연미복과 함께 입는 윈 칼라의 셔츠로 플리츠와 프릴로 장식한 텍시도 용 셔츠가 이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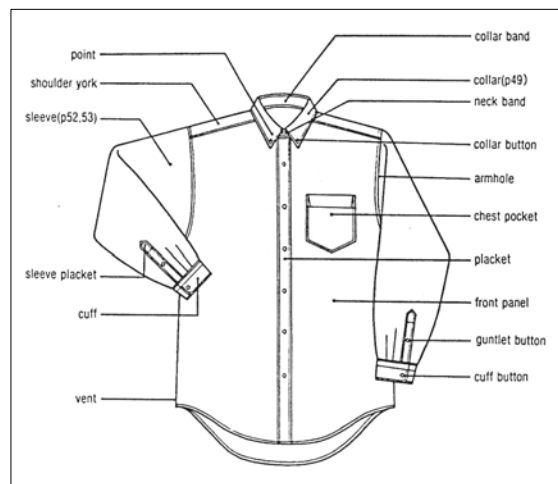
드레스 셔츠는 수트와 함께 입는 셔츠의 총칭으로 원래는 예장용 셔츠를 일컫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넥타이를 매는 셔츠 전반을 가리킨다²²⁾. 캐주얼 셔츠는 포멀 셔츠와 드레스 셔츠를 제외한 셔츠의 총칭으로 종래의 실용성과 기능성을 위주로 디자인된 스포츠

나 레저용 셔츠뿐 아니라 다양한 목적의 셔츠들이 이에 해당된다. 보통 타이를 매지 않는 셔츠가 이에 포함된다.

드레스 셔츠는 크게 앞판(front piece), 뒷판(back piece), 칼라(collar), 요크(yoke), 소매(sleeve)로 이루어진다(그림 13). 앞판에는 단추 구멍이 있는 셔츠의 앞여밈 부분인 플레킷부분과 포켓으로 이루어져 있다. 플레킷은 단추로 셔츠 앞자락을 여밈으로써 셔츠의 중심선을 가지런하게 잡아주며 깨끗하게 마무리해준다. 원래 속옷이었던 셔츠는 포켓이 없는 것이 기본이나 포켓이 있는 경우 라운드형이 가장 포멀한 느낌이다.

요크는 셔츠의 앞판과 뒷판을 이으면서 어깨를 덮고 있는 부분으로 어깨에서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어깨의 움직임에 대한 여유분을 생각하면서 만든다.

칼라는 셔츠에서 가장 큰 시각적 효과를 주는 부분으로 칼라의 각도, 크기, 높이에 따라 착용자의 이미지는 크게 변화한다. 현대의 칼라는 그 구조에 따라 칼라 톨, 칼라 스탠드, 칼라 폭, 칼라 밴드, 칼라 끝, 칼라 벌어진 폭으로 되어 있다. 칼라는 넥타이를 매었을 때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칼라의 뾰족한 부분인 칼라 포인트는 포



〈그림 13〉 셔츠의 구조.

출처: 임혜원 (2001), *드레스 셔츠의 소비자 실태와 치수규격 연구*.

20) 황삼숙, op. cit., p. 29.

21) 이정호, op. cit., p. 8.

22) 임혜원, “드레스 셔츠의 소비자 실태와 치수규격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20.

인트의 길이에 따라 레귤러, 롱, 쇼트 포인트의 종류가 있다. 셔츠 칼라의 목둘레를 따라 칼라가 서 있는 부분 즉, 칼라 스탠드는 내측의 피부에 닿는 부분을 네크 밴드, 외측을 칼라 밴드라 한다.

칼라의 종류로는 레귤러 칼라, 버튼 다운 칼라, 탭 칼라, 와이드 칼라, 스탠드 칼라, 클래식 칼라, 윙 칼라, 롱 포인트 칼라, 오픈 칼라, 라운드 칼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레귤러 칼라는 전통이 오래된 셔츠 칼라의 기본이 되는 칼라이다. 유행의 주기에 따라 셔츠 칼라의 폭이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등 변하기도 하나 보통 75°가 표준이다. 버튼다운 칼라는 드레스 셔츠뿐 아니라 캐주얼 셔츠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스타일로 칼라 끝싹타일로 깔고정시켜 잠글 수 있게 한 셔츠이다. 탭 칼라는 칼라 양쪽에 고리(탭)가 달려 있어 타이의 매듭 밑에서 서 칼연결하여 타이의 모양을 고정시킬 수 있게 한 칼라이다. 와이드 칼라는 멋쟁이였 타원저공이 개발한 칼라로 칼라의 폭이 넓고 풀을 먹여 뺏뺏해서 칼라이다타입의 칼라이다. 스탠드칼라는 차이니스 스타일의 밴드 칼라로 타이를 매지 않아도 단정이다. 을 주는 칼라이다. 클래식 칼라는 성직자, 신부 등의 복식이 원 있게된 칼라로 몸판스타 줄무늬이거나 흰색 이외셀타일색이고 칼라는 흰색 무지 소재인 셔츠이다. 윙 칼라는 칼라가 수직으로 되어 있으며, 나비넥타이를 뺄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예장용 수트와 잘 어울린다. 롱 포인트 칼라는 칼라의 벌어짐의 각도가 큰 칼라이고, 오픈칼라는 칼라의 벌어짐의 각도가 커서 타이를 매지 않고 착용하며 여름 남방에 많이 쓰인다. 라운드 칼라는 이름 그대로 칼라 끝이 둥그런 모양의 칼라이며, 풀을 먹여 뺏뺏하게 해서 수트와 입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스포츠 재킷과 어울린다.

소매는 팔을 감싸는 부분으로 소매의 길이와 실루엣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며, 커프스와 결합되어 전체적인 외형을 구성한다. 소매는 커프스, 소매 덧단, 트임으로 구성되며, 커프스는 소매 아래로 레이스 주름이 보이던 것에서 유래하였으며, 항상 상의의 소매 아래로 1.5cm 정도 보여지는 것이 적당하다. 커프스의 종류로는 배럴 커프스, 프렌치 커프스, 컨버터블 커프스, 어저스터블 커프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배

럴 커프스는 단추로 잠글 수 있는 모든 커프스의 총칭으로 싱글 커프스라고도 하며, 가장 기본적인 커프스이다. 프렌치 커프스는 더블 커프스라고도 하며, 두 번 접어 만든다. 컨버터블 커프스는 단추와 커프링크스(cuff links)를 겸용할 수 있는 커프스이며, 어저스터블 커프스는 커프스 둘레를 필요에 따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커프스를 말한다²³⁾.

3)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셔츠 디자인

20세기 이후 성 개념의 변화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고 이분법적 남녀의 성 개념은 모더니즘적 기능성, 효율성, 합리성, 객관성, 과학성 및 획일화에서 전환하여 탈 획일화로 그 성격을 전환하게 된다. 이는 속옷으로서의 셔츠가 추위로부터의 신체 보호, 의상 형태의 유지, 청결함 등을 위한 실용적 기능과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에 대한 계층 구별이라는 신분 표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이 사고의 전환으로 인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셔츠에서 신분 표시의 기능을 사라지게 하였고, 대신 기능성이나 디자인 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 셔츠에서 나타나는 양성성의 일면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증한다.

그러나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의 가치를 차용한다고 해서 남성의 셔츠가 그 자체의 성 구분성을 잃고 여성성으로 대체되지는 않는다. 단지 앤드로지너스 적인 모호한 성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셔츠에 있어서 성 구분성은 확실히 모호해졌으며, 전통적 남성성과 함께 셔츠에서 발현되는 한 부분이 되었다. 전통적 남성성에 있어서 셔츠는 여전히 남성의 대표적 아이템으로서 착용되고 있다.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이미지의 셔츠들을 살펴보면, <그림 14>는 셔츠가 변형된 디자인으로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해 여성의 신체 굴곡을 드러내 줌으로써 양성성을 나타내고 있다. 남성복에서 보여지는 셔츠의 양성성은 여성적 이미지의 무늬나 소재의 사용(그림 15), 장식성이 많이 가미된 디자인(그림 16), 신체의 노출(그림 17) 등으로 나타난다.

23) 김영자, op. cit., pp. 72-73.



〈그림 14〉 YSL. 2004 S/S. 〈그림 15〉 Alexander Mcqueen. 2006 F/W.



〈그림 16〉 Viktor & Rolf. 2005 F/W. 〈그림 17〉 Kris Van Assche. 2006 S/S



Ⅲ. 작품 제작

앤드로지너스는 자신의 성을 부정하지 않고 남성, 여성이 가지는 각각의 아름다움을 서로 교차시킨 새로운 감각이며 자유로운 감성의 추구는 앤드로지너스 룩의 발전을 계속해서 가능하게 할 것이며,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 하며 발전해 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앤드로지너스 이미지를 셔츠라는 복식 아이템을 통해 표현해 보자 한다.

작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패션에 나타난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미지의 표현 요소를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요소가 공유된 셔츠를 제작하였다. 셔츠의 기본이 되는 화이트 셔츠와 스트라이프 셔츠를 기본으로 면 100%의 옥스퍼드 면과 스판과 혼방 면 두 가지 소재를 사용하였다. 셔츠 칼라와 커프스, 절개선이 없는 박스 형식의 셔츠를 기본으로 남성적 디자인 요소를 유지한 채 여성적 디자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컷팅, 주름, 셔링, 리본 등의 기법 등을 이용하여 앤드로지너스 이미지의 셔츠를 제작하였다. 앤드로지너스 이미지를 응용한 셔츠 디자인 전개는 〈표 1〉과 같다.

8벌의 작품은 남성 모델에게 입혀 패션 스타일링하였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함께 표현된 셔츠이지만 시각적으로 여성성의 디자인 요소가 두드러져 여성

이 착용하였을 때보다 남성이 착용하였을 때 그 양성성의 표출이 더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앤드로지너스 적 이미지의 시각화를 위해 전문 사진작가와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가 참여해 스타일링하였다.

Ⅳ. 결 론

복식의 상징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대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복식이 가진 여성성과 남성성의 상징성도 계속 변화한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성의 이분법적 구분은 무의미하며, 각자의 성이 가진 장점을 수용하고 받아드리는 열린 사고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앤드로지너스 이미지를 응용하여 현대 남성 셔츠의 새로운 조형성을 제시하고 현대 트렌드에 적용시켜 다양하게 전개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총 8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성의 이분법적 구분은 무의미하며 각자의 성이 가진 장점을 수용하고 받아드리는 열린 사고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자유로운 감성과 개개인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앤드로지너스 룩은 앞으로도 그 모습을 달리 하며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표 1> 앤드로지너스 이미지의 셔츠 디자인

	디자인 1	디자인 2	디자인 3	디자인 4
작품 사진				
도식화 앞				
도식화 뒤				
작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적 요소: 단순한 구성선, 무지, 셔츠 칼라, 커프스 심지 · 여성적 요소: 리본 형태의 묶기 기법, 치마 형태, 메이크업, 피트되는 실루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적 요소: 단순한 구성선, 스트라이프 무늬, 셔츠 칼라, 커프스 심지 · 여성적 요소: 리본 형태의 묶기 기법, 메이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적 요소: 단순한 구성선, 스트라이프 무늬, 셔츠 칼라, 커프스 심지 · 여성적 요소: 겹겹이 붙이기 기법의 장식, 메이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적 요소: 단순한 구성선, 무지, 셔츠 칼라, 커프스 심지 · 여성적 요소: 불규칙한 주름 디테일, 소품(코사지), 메이크업
소재	면 100% 핀포인트	면 100%	면 100%	옥스퍼드 면 100%

<표 1> 계속

	디자인 5	디자인 6	디자인 7	디자인 8
작품 사진				
도식화 앞				
도식화 뒤				
작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적 요소: 단순한 구성선, 스트라이프 무늬, 셔츠 칼라, 커프스 심지 · 여성적 요소: 겹겹이 붙이기 기법의 장식, 리본 장식, 어깨 노출, 메이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적 요소: 단순한 구성선, 무지, 셔츠 칼라, 커프스 심지 · 여성적 요소: 리본 형태 묶기 기법, 셔링 기법, 메이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적 요소: 단순한 구성선, 무지, 셔츠 칼라, 커프스 심지 · 여성적 요소: 불규칙한 주름 기법을 이용한 케이프, 메이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적 요소: 셔츠 칼라에서 넥타이 모양으로 연결되는 칼라 디자인, 무지, 커프스 심지 · 여성적 요소: 셔링 기법, 메이크업
소재	면 100%	C/P스판 혼방 면	옥스퍼드 면 100%	C/P스판 혼방 면

둘째, 셔츠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널리 애용되고 있는 아이템의 하나로 최근에는 주 5일제 근무로 인하여 레저 생활이 확대되면서 캐주얼한 걸옷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앤드로지너스라는 관념과 셔츠라는 복식 아이템이 만나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의 제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셋째, 작품의 색채는 작품의 형태를 부각시키기 위해 단색의 화이트와 스트라이프 무늬 두 가지를 사용하였고, 소재는 셔츠의 가장 기본적인 소재인 면과 혼방 두 가지 소재를 사용해 다양한 기법을 통한 형태의 변화를 강조할 수 있었다.

넷째, 여성복에서 많이 쓰이는 리본 형태의 묶기 기법, 셔링, 겹겹이 붙이기 기법, 불규칙한 주름 기법 등의 장식적인 디테일이나 트리밍을 응용하고, 드레이프 성이 강한 실루엣을 통해 남성 셔츠에 여성성을 표현하여 앤드로지너스적인 의상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계기로 다양한 장식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앤드로지너스 이미지의 셔츠 디자인 연구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영자 (1999). *패션디자인*. 서울: 경춘사.
 김민자 (1987). “2차 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11권 2호.
 김세영 (1995). “현대 남성복의 조형적 특성에 나타난 양성화 경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인, 이연희 (2005). “현대 패션 룩(look)에 표현된 성(性) 정체성.” *복식문화연구* 13권 5호.
 김정연 (2007).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젠더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터마리 로즈 (1983). *여성해방과 성의 혁명*. 최공복역. 서울: 일월서각.
 박수진 (2002). “앤드로지너스 룩의 색채특성.” 연세

대학교 대학원 패션산업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서은희 (2004). “남성 패션에 나타난 성 정체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흥식 (2001). “20세기 후반 여성복에 나타난 양성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은아, 이선재 (2000). “성 역할 정체감이 걸옷, 속옷에 대한 의복행동 및 의복 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4권 2호
 이민선 (2001).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상래 (1997).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걸옷화 현상.” *복식* 35권.
 이정호 (2007). “현대 남성 셔츠에 나타난 성 개념과 미적가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지 (2007). “국내 남성패션의 여성화경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혜원 (2001). “드레스 셔츠의 소비자 실태와 치수 규격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수진 (1999).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삼숙 (1999). “남성복 Dress Shirts의 변천 과정과 유행 주기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alasibetta, Charlotte Mankey (1988).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Kaplan, Alexandra G. (1989). *Psychology and Sex Rol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Kaplan, Alexandra G. and Joan P. Bean (1976). *Beyond Sex-Role Stereotypes: Readings toward a Psychology of Androgyny*. Boston Toronto: Little, Botton and Company.